



넓고 큰 집

집에 대한
가치관 변화

살기 편한 집
만족을 주는 집

주택 시장 초소형화 트렌드

1인 가구 확대로
‘초소형 주택’ 증가 경향

1인 가구 주거 평수

33㎡ 이하 ... 47.6%

※ 출처: KB경영연구소
(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)



전용면적 40㎡ 이하(12.1평)
초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된
대규모 단지 등장

ex) 대우건설

‘가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’
전체 1,454실이 17~35㎡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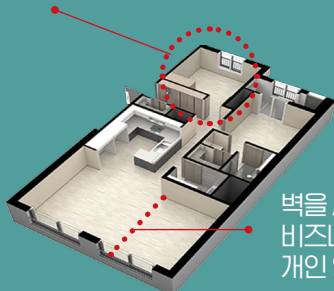
공간을 마음대로!
트랜스포머 주택

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
내부 공간 변형이 가능한 주택

ex) 대림산업 ‘D. House’

내부 벽 구조체 최소화,
가변형 벽체로 다양한 공간 연출 가능

벽 위치를 바꿔
원룸으로 사용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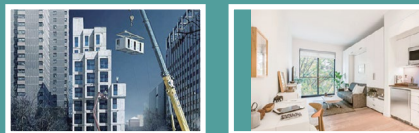
벽을 세워
비즈니스 영역과
개인 영역 분리

대도시 속
‘마이크로 하우스’

Micro Housing

주거면적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해
집값을 대폭 낮춘 주거공간

대도시 중심으로 형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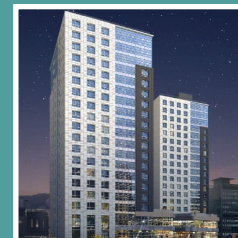
집은 좁지만 각종 편의시설 및
문화시설 접근 용이

마이크로 하우스는
편의성, 접근성, 연결성을 중시하는
1인 가구에 만족감 극대화

호텔급 서비스 제공하는
임대주택

세탁, 청소 등 집안일을
아웃소싱 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장

ex) KT Estate 임대전용 주택
‘리마크빌’



본 내용은 삼성닷컴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관련 칼럼/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<http://www.samsung.com/sec/business/insights/?biz-trend>

- 본 자료는 삼성전자의 입장이나 전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 실린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전제,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